

“현악기의 고장 이탈리아 크레모나에 개인 공방 여는 게 꿈”

몰타 국제 현악기 제작 콩쿠르 현악사중주 1등 없는 2등상 수상한 흥진옥씨

이탈리아는 현악기 제작으로 유명한 나라다.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제작자로 불리는 스트라디바리가 태어난 크레모나를 비롯해 밀라노 등 곳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현악기 제작자들이 작품을 만들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크레모나에서 가까운 파르마 역시 현악기 장인들의 고장으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예비 장인들이 악기 제작에 몰두하는 곳이다.

파르마 제작학교(La scuola di liuteria di Parma) 5학년 재학중인 목포 출신 흥진옥(43·사진)씨 역시 매일 매일 악기 제작에 맘을 쏟고 있다. 최근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은 수상 소식을 알린 그와 이메일 인터뷰했다.

그는 최근 막을 내린 '2018 몰타 국제 현악기 제작 콩쿠르' 중 현악사중주(String Quartet) 부문에서 '1등 없는 2등상'을 수상했다. '현악 4중주' 부문은 바이올린 2대, 비올라, 첼로까지 4대의 악기를 제작해야한다. 몰타 콩쿠르는 지난해까지 바이올린과 비올라 부문만 진행하다 올해 첼로, 특별 악기 등으로 분야를 확대한 대회로 특히 흥씨가 입상한 '현악 4중주' 경연은 전 세계에서 미국 현악기제작 콩쿠르와 몰타 대회 단 두개 뿐이다.

이에 앞서 흥씨는 2017년 '피렌체 국제 현악기 제작 콩쿠르'에서는 바이올린 3등, 첼로 1등, 특별상을 한꺼번에 수상했으며 2016년 '제 1회 이탈리아 국제 제작 콩쿠르 -로마'에서는 바이올린 부문 1위를 차지, 현지에서 연주회와 함께 전시회를 열었다. 목포 출신으로 목포대학교에서 첼로를 전공한 흥

목포 출신 목포대서 첼로 전공

39살 늦깎이 파르마 제작학교 입학

로마·피렌체 콩쿠르 잇단 수상

바이올린·첼로 등 30여점 제작

씨는 지난 2015년 파르마 제작학교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악기 제작을 시작했다.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돼서 기뻐요. 현악기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10여년 동안 한국에서 첼로 연주와 음악교육을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현악기 연주와 제작 모두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목표 아래 노력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건 같아요. 현대의 악기가 만들어지기까지도 줄을 걸고 조율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죠. 현악기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건 첼로예요. 바이올린의 경우 제작부터 연주까지 최소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첼로는 바이올린 등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죠. ‘바니쉬(칠)’ 과정이 끝나고 좋은 소리와 좋은 연주 포지션을 찾을 때 첼로를 전공해서인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가 파르마 제작학교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다. 2014년 39살 늦은 나이에 크레모나 제작학교에 입학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한



국에서 익숙했던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3개월 정도 크레모나에 거주하며 준비를 하던 그는 그해 입학생이 유난히 많이 몰리면서 불합격하게 된다. 어렵게 시작한 도전을 멈추고 싶진 않았다. 단기 1년 어학 연수 등록을 마치고 어학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그가 등록했던 어학원이 인증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는 당일 이탈리아행 비행기 티켓을 들고 아침 일찍 대사관에 들러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2015년 학기에 다시 응시하기 위해 바이올린 제작과 이태리어 공부에 몰두했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입학 자격이 이태리 현지 나이로 35살 이하로 한정돼 버렸다.

“10여년이 넘도록 유학중인 그 누구도 겪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들이 저에게 자주 일어나는 지 처음엔 좌절도 많았죠. 결국 크레모나에서 한 두 시간 떨어진 파르마와 밀라노 제작학교를 목표로 바이올린 제작 공부를 했죠. 유학생 선배들과 외부 마에스트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 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2016년, 1년만 더 머물며 공부하기로 맘먹고 이번에도 실패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 때 학교측으로부터 취소자가 한명 생겼으며 입학의향을 묻는 문자가 왔고 그는 파르마학교에 입학한다. 1학년 과정을 마친 그는 마에스트로들의 회의를 거쳐 특별 과정으로, 5년 과정을 2년만에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이후 다양한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발휘중이다.

올해는 5월에 불가리아와 독일에서 각각 열리는 ‘국제 현악기 제작 콩쿠르’에 도전하기 위해 악기 제작에 열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제작한 현악기는 바이올린 16대, 비올라 5대 첼로 5대 등이다. 5월 콩쿠르 준비분까지 합치면 모두 30대가 된다.

“올해 6월 졸업하면 현지에서 현악기 제작에 더욱 집중하려 해요. 무엇보다 이탈리아 사업자로 ‘현악기의 고장’ 크레모나에 공방을 오픈하는 게 저의 오랜 꿈입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불상·달항아리...역사에 빛을 더하다

도립 전라남도옥과미술관 3월 1일~5월 24일 정현숙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 반가사유상(국보 83호)의 온화한 미소가 화폭에 은은히 번진다. 색색의 점이 박힌 회색빛 배경이 작품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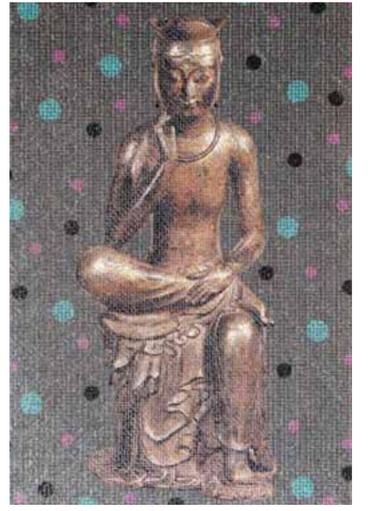
오랫동안 사라져 가는 한국의 정서를 화폭에 담은 정현숙 작가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도립 전라남도옥과미술관은 2018 외부 기획전으로 ‘역사에 빛을 더하다-정현숙’전을 3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아산 1실에서 진행한다.

정 작가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Before and After’ 시리즈를 통해 전통적 소재를 재해석하며 숭고한 한국미를 화폭에 담아왔다.

무엇보다 사라져 가는 역사 속 한국의 정신에 대한 통찰을 계속해온 작가는 자개 등 전통 소재와 스와르브스키 등 현대적 소재의 어우러짐과 조화를 통한 새로운 조형 언어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 반가사유상을 비롯해 우리나라 문화재인 석가탑, 반가사유상, 백자 등을 모티브로 과거의 역사가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라만상 윤회의 순환원리를 담은 ‘Before & After’ 시리즈들 중 ‘월’, ‘달 항아리’, ‘불상’ 시리즈 등 정 작가의 주요 시기 대표작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수학한 정 작가는 현재 대전대학교 현대조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지금까지 베를린 리 갤러리, 롯데호텔 갤러리 등 국내외에서 20여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Before and After’

또 아모레 퍼시픽 설화수·헤라 등과 콜라보·광고 작업을 진행했으며 한국미술작가상, 정작미술상, 마니프 특별상, 한국현대미술제 초대작가상을 수상했다.

한편 1988년 문운연 도립옥과미술관은 문인화의 대가 아산 조방원 선생이 기증한 작품들을 토대로 문운연 미술관으로 매년 다양한 기획전을 열고 있다. 문의 061-363-727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CC 봄날 투어’

3월 3일~5월 26일

매주 토요일

공공미술 투어도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3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오후 2시30분) ‘ACC 봄날 투어’를 실시한다. 또 지난해 처음 운영, 인기를 모은 ‘ACC 공공미술 투어’도 3월 1일부터 매일 오후 4시 상시 운영한다.

‘ACC 봄날 투어’는 다양한 꽃과 나무 등 자연 풍경을 만끽하며 각 공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투어 프로그램 참여자는 ACC 건축물들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된 공간을 거닐며 봄바람을 만나는 열린마당, 새싹이 돋는 나무들을 볼 수 있는 옥상공원, 어린이문화원 옥상 놀이 공간, 초록빛을 띠는 잔디밭인 하늘마당(사진), 내부 중정 등 다양

한 조경요소들을 만난다. 참가자에게는 투어 중 만날 수 있는 ‘금목서’를 모티브로 제작한 방향제를 증정하며 ACC 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폴라로이드 이벤트도 마련한다.

신청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의 ACC 투어 페이지에서 하면 된다(30명 정원). 당일 취소분 또는 미예약분에 한해서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여름철 야간 투어 ‘ACC 달빛 투어’, 가을에 열리는 ‘ACC 낭만 투어’, 겨울에 진행되는 ‘ACC 백스테이지 투어’는 올해도 계속 운영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파르마 제작학교에 재학중인 목포 출신 흥진옥씨가 2018 몰타국제현악기 제작콩쿠르 ‘현악 4중주’ 부문에서 ‘1등 없는 2등상’(실비)을 수상한 작품.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관주맛집 since 1981 37년 고성과 함께 지켜온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의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종 정갈 특선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마를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동·서규모의 연회장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